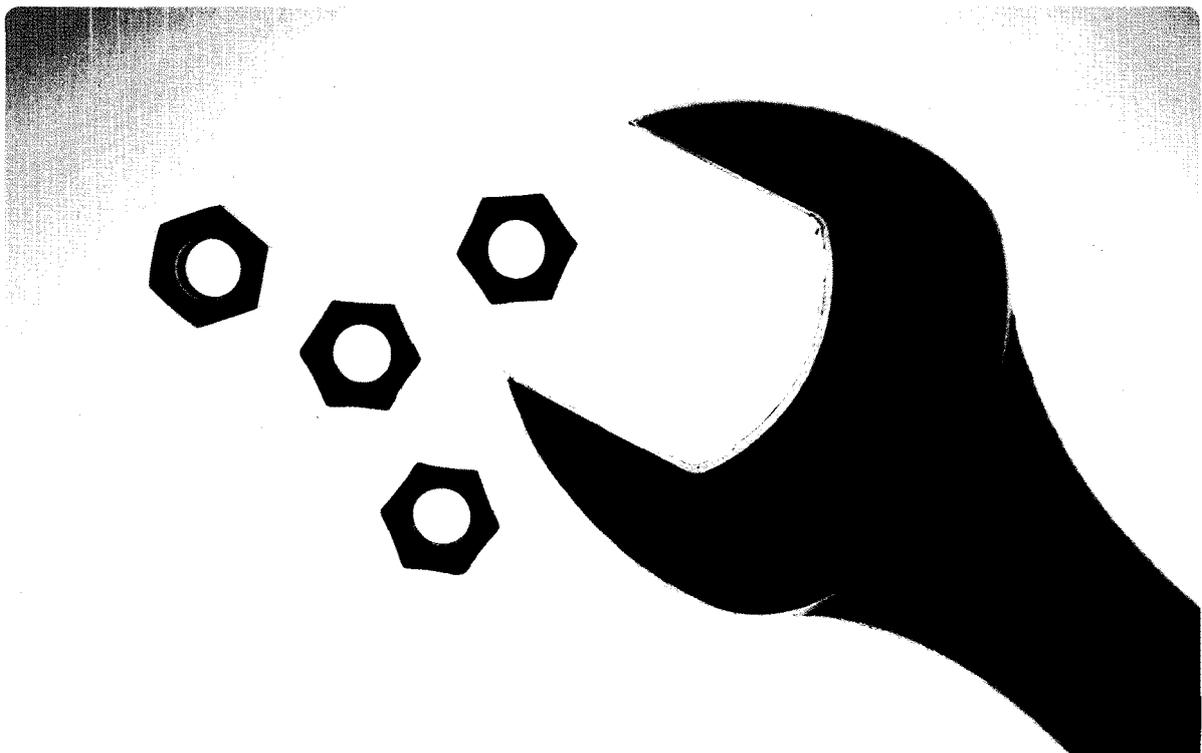


# 인적자원에서부터 아웃소싱까지

ISO, 5개 분야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해 업무 확대

“ISO가 5개 분야 신규 기술위원회를 설립해 업무를 확대했다. 5개 분야는 프로젝트, 프로그램, 포트폴리오 경영과 아웃소싱, 인적자원관리, 적층 제조, 위기관리이다. <편집자>”



▲ 나사의 크기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 1만 8,600여 종 국제표준이 개발되었지만, 최근 ISO의 업무 분야는 확대·다각화 되고 있다. 신규 5개 분야는 프로젝트·프로그램·포트폴리오 경영, 아웃소싱, 인적자원관리, 적층 제조(Additive manufacturing), 위기관리이다.

나사의 크기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 1만 8,600여 종 국제표준이 개발되었지만, 최근 ISO의 업무 분야는 확대·다각화 되고 있다. 신규 5개 분야는 프로젝트·프로그램·포트폴리오 경영, 아웃소싱, 인적자원관리, 적층 제조(Additive manufacturing), 위기관리이다.

## 프로젝트, 프로그램, 포트폴리오 경영

ISO/TC 258, 프로젝트, 프로그램, 포트폴리오 경영은 ISO/PC 236이 현재 개발 중인 표준(ISO 21500)에 포함되지 않고 많은 국가에서 필수적이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야를 수행할 예정이다. 첫 회의는 2011년 6월 27~29일 미국 워싱턴 D.C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. 위원회의 간사국과 의장국은 미국 ANSI와 영국 BSI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.

## 아웃소싱

아웃소싱에 대한 기존 문서의 복잡성과 공통의 용어가 없는 점을 들어, ISO는 ISO/PC 259 아웃소싱이라는 신규 프로젝트 위원회를 설립하였다.

위원회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2011년 6월 16~17일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. 간사국과 의장국은 네덜란드 NEN과 영국 BSI이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,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.

## 인적자원관리

점점 많은 조직이 국경을 초월하고, 노동력은 점차 이동적이고 글로벌해지고 있다. 이러한 맥락에서 인적자원관리를 통일하는 것은 효율성 보장에 필수적이다.

신규 ISO 위원회 ISO/TC 260 인적자원관리는 지침서, 프로세스, 정책, 관행, 서비스 등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. 25개국이 현재 참여중이며 위원회의 간사국은 미국 ANSI가 담당하고 있다.

## 적층 제조

적층 제조는 제품개발과정의 고유한 부분이다. 이러한 적층은 제조원형, 도구, 생산부품에 사용된다.

새로운 ISO 기술위원회인 ISO/TC 261, 적층제조는 산업계의 개발과 시장 진입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할 것이다. 첫 회의는 독일 베를린에서 2011년 7월 26~27일 개최 예정이다. 위원회 간사국은 독일 DIN이 담당하고 있으며,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.

## 위기관리

세계를 경악시킨 자연재해를 겪은 이후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줄 도구를 찾고 있다. 2009년 종합적인 위기관리 툴박스가 ISO 작업반에 의하여 개발되었다. 현재 ISO는 새로운 PC ISO/PC 262, 위기 관리를 신설하여 이러한 표준의 이행에 지침을 제공해줄 문서를 개발할 업무를 도모하고 있다. 이러한 문서는 다음을 포함한다.

위기관리 구조와 프로세스 이행/위기관리 전략/위기관리문화 개발/확인된 위험의 처리와 관리/  
지배구조/위기관리에 대한 조직성과의 개선/조직의 기회 최대화와 손실 최소화

이러한 문서들은 적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한 표현과 용어를 사용한 모든 규모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. 현재 3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. 간사국과 의장국은 BSI와 SA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, 첫 회의가 2011년 9월 12~16일 개최될 예정이다.



세계를 경악시킨 자연재해를 겪은 이후 사람들은 재앙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줄 도구를 찾고 있다.